

곡성군, 토란 주산지 입지 굳혀간다

토란 요리·디저트 등 다양한 상품 개발 시장 확대 주력
작업 기계화로 생산량 늘리고 공동출하 등 경쟁력 강화

곡성군이 토란 상품 다양화와 토란 손질 기계화, 대표 품종 육성에 나서며 토란 주산지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곡성군은 토란이 다른 음식들과 잘 어울릴 수 있다는 장점을 이용해 토란 요리와 디저트 등은 물론 다양한 가공품을 개발하고 토란 농가의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기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계화로 생산성 높이는 토란 농가=곡성군은 토란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토란 재배농가의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남도 농업기술원과 함께 생산비를 절감하는 실용화사업을 추진했다.

곡성군 고달면 토란 재배농 권순택씨 주도로 농업기술원의 기술지원을 받아 토란 뿌리 제거부터 선별까지 가능한 올인원 시스템을 개발했다.

올인원 시스템은 1ha 기준 예상 노동 투입 시간을 70% 이상 절감해 농가 실수익률을 49% 이상 개선할 수 있다.

곡성군은 올인원시스템을 토대로 토란 공동출하·공동선별 기반 등도 조성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곡성 농업기술센터는 토란 줄기 박피기의 성능도 개선했다.

말린 토란 줄기는 보통 1kg당 2만4000원 정도에 판매되는 고소득 작물이지만, 직접 토란 줄기를 벗기는 일손이 없어 대부분 폐기 처분했다.

군은 지난해 농촌진흥청 연구사업으로 기계 성능을 보완해 토란 줄기 박피, 세척, 절단까지 가능한 장비를 마련했다.

박피기는 시간당 120kg의 토란 줄기를 벗겨내 12명의 뒤통에 달하는 작업 능력을 자랑한다.

◇토란 음식·상품 다양화로 소비 확대=곡성군 농업기술센터는 무색무취의 점성을 가져 다른 음식들과 잘 어울릴 수 있다는 장점을 이용해 토란 요리와 디저트 등을 다양하게 개발하며 토란 시장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알토란, 간토란, 토란대와 같은 1차 생산물은 물론 토란을 이용한 한과, 부각, 설탕 등 다양한 가공품을 연구·개발해 시장에 내놓고 있다.

특히 토란 아이스크림, 토란 쿠키, 토란 파이, 토란 들깨당 등 음식부터 디저트까지 다양한 음식을 선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토란을 삶아서 으갠 ‘매시드 토란’을 이용해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토란 스피드 레시피를 개발하기도 했다.

스피드 레시피를 활용하면 토란 음식 3종(수프·피자·크로켓)과 토란 디저트 2종(약과·파이)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

이와 함께 군은 토란 생산의 절대 우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생산량 증대 및 토란



곡성군 농업기술센터는 다양한 토란 요리와 디저트 등을 개발해 토란 소비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토란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들. <곡성군 제공>

명품화에도 나서고 있다.

토란 재배농가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벼 윤작 대비 토란 연작 시험을 올해까지 3년째 진행 중이다.

올해 3연작 토란재배지 수확량 조사가 완료되면, 국내외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와 그동안의 시험 재배 결과를 종합해 연작 재배의 나아갈 방향을 정립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곡성 명품토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군과 지역 대학교, 유관기관, 전남도 농업기술원과 힘을 합치고 농민들의 참여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이야기보따리 할머니, 책 읽어주세요”

고흥군, 조손놀이방 등 16곳 방문 구연동화 프로그램 운영

고흥군은 3일부터 ‘이야기보따리 할머니, 책 읽어주세요’ 하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단절되기 쉬운 조손세대를 연결해주고 지역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인성을 키워주며, 실버세대에게는 건강한 노년생활 영위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야기보따리 할머니는 도서관, 가족센터 조손놀이방,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지역 내 아동교육기관 16개소를 직접 방문,

아동들에게 창의성 표현활동인 ‘손유희’ 프로그램과 그림책을 보면서 상상력을 키워주는 구연동화를 펼친다.<사진>

올해 상반기 이야기보따리 할머니가 활동했던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할머니가 유치원에 들어서는 순간 아이들의 ‘이야기보따리 할머니다!’라는 환호성이 시작된다”며 “순수 예쁜 글씨와 그림으로 꾸며진 교구를 활용해 흥미롭고 실감나게 동화를 들려준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



고흥군, 이장 수당 30만원으로 늘린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계획...군민 의견 반영 주민참여예산제 운용

고흥군의 이장 수당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흥군에 따르면 군민 수혜도를 높이는 예산편성을 위해 이장 수당을 30만원 이내로 확대하는 등 내년도 본예산 편성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회계 및 기금 업무담당자 110여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주요 개선내용과 운영기준,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매뉴얼 및 보조금 정산과 관련한 감사지적 사례 등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설명회’를 가졌다.

군은 지방보조금 사업의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 정산 및 중요재산 관리와 감사지적 사례까지 전반적으로 보조금 운영관리 매뉴얼을 이해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업무역량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2020년도 예산편성 주요 개선된 내용으로는 이통장 수당의 현실화를 위해 기존 20만원의 수당을 30만원 이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층에 금전적 보상금 외에 물품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편성 범위로 확대했다.

또 선심성 예산편성 금지를 위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시에는 사업시행 전 사전 협의절차를 준수하도록 명시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편성은 민선7기 역점사업과 공약사업 실천과제 및

군정 주요사업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흥군의 이장 수당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군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용하고 있다.

군의 2020년도 본예산안 편성은 10월 초까지 각 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제출받아 예산실무 심사 등 편성작업을 마무리한 뒤, 오는 11월21일까지 군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

곡성세계장미축제 인기, 데이터로 입증

2019대한민국 빅데이터 축제서 인기대상 수상

곡성 세계장미축제의 뜨거웠던 인기가 데이터로 입증됐다.

곡성군은 지난 1일 서울 KT올레스퀘어에서 열린 2019년 대한민국 빅데이터 축제 대상에서 곡성 세계장미축제가 신예 인기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빅데이터 축제 대상은 매일경제,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 고려대학교 빅데이터 융합사업단, KT, BC카드, 다음소프트가 공동으로 대한민국의 우수한 지역축제를 선발하여 시상하는 행사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크고 작은 축제 1290여 개를 대상으로 하며 관광객 소비지출과 SNS 노출수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평가를

진행한다.

곡성 세계장미축제는 4만㎡의 장미공원에서 유럽 최신품종 1004종 수억만 송이의 아름다운 장미를 보고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알려져 있다.

매년 5월 중순계부터 하순까지 열흘가량 진행되며, 올해는 ‘행운의 황금장미상상 속으로’라는 콘셉트로 축제장 전역을 아름다운 황금장미로 조성해 관광객들을 사로 잡았다.

이번 평가에서 곡성 세계장미축제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 주말 방문객 증가율 등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를 달성하는 등 대다수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보성군, 독립운동가 활동 사진 30여점 전시

남도 의병의 중심지로 부각을 받고 있는 보성군이 오는 13일까지 보성군청 로비에서 독립운동가 활동사진 30여점을 전시하고 있다.<사진>

이번 전시회는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 의항의 고장 보성군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깊다.

전시회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보성군지회 및 별교특별지회에서 주최하고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라남도지회에서 후원했다.

별교특별지회 장장석 회장은 “광복74주년인 올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이번 전시회를 준비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지킨 애국지사들의 정신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성군은 꾸준히 역사 선양사업과 보존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역사 속에 가려져 있던 의병 777명을 발굴 하는 등 향토사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지난 달에는 의병 유족들이 88점의 유물을 보성군에 기탁했다.

별교특별지회 회장석 회장은 “광복74

주년이 올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이번 전시회를 준비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지킨 애국지사들의 정신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성군은 꾸준히 역사 선양사업과 보존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역사 속에 가려져 있던 의병 777명을 발굴 하는 등 향토사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지난 달에는 의병 유족들이 88점의 유물을 보성군에 기탁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구례군, 17일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구례군은 17일부터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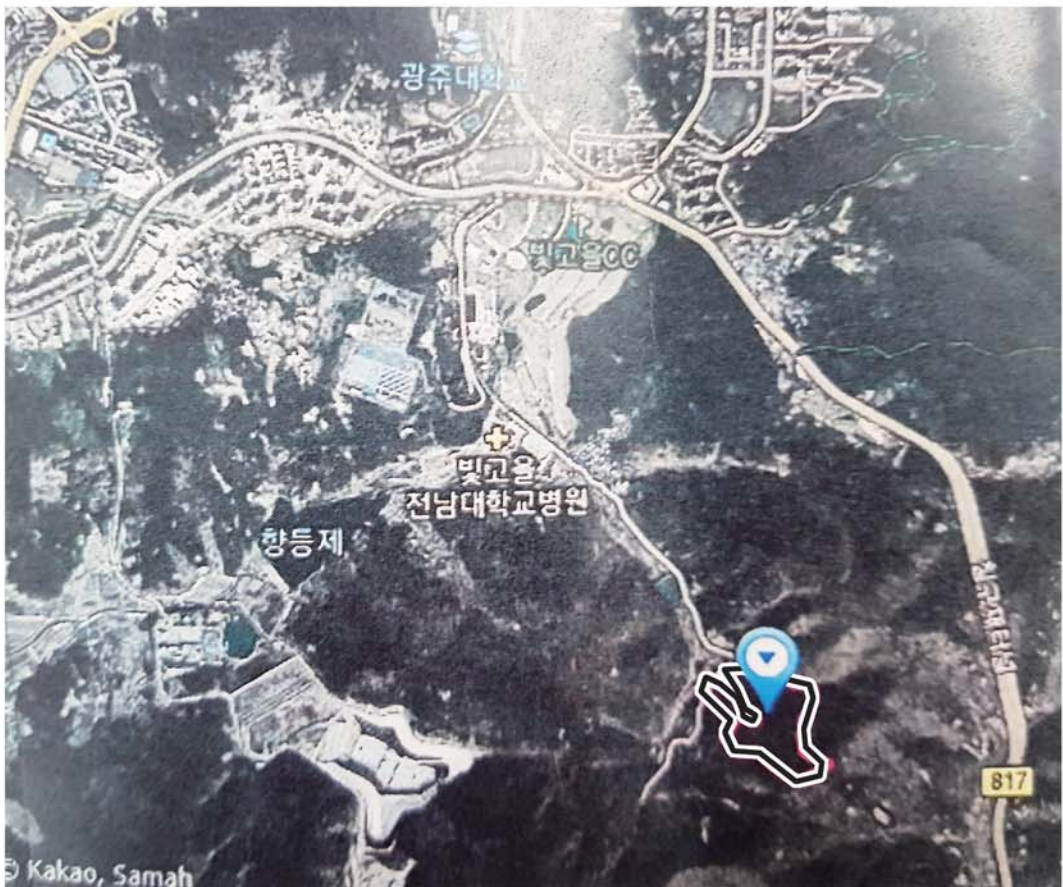
군은 접종희망자 급증으로 인한 혼잡과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상자별로 기간을 나눠 실시한다.

오는 17일부터는 2회 접종 만 8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만 75세 이상 노인 및 1회 접종 12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는 10월15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은 10월22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12세 이하 어린이 및 임신부, 만 65세 이상(1954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노인은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예방접종이 가능하며, 지역내에서는 보건료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예방접종 시간은 어르신들은 오전 9시~오후 4시며, 어린이는 오전 9시~낮 12시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덕남동, 임야 급매장단기 최고 투자 물권

- 992㎡,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덕남동 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6834-7400